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 Mediation effects of Emotional Autonomy -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전 숙 영

Departmen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ersity
Full-time Lecture : Jeon, Sook-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depression, anxiety, withdrawal, and aggression). In order to expand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possible mediator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autonomy on the relationships. The subjects were 293 6th graders residing in Cheonan. It was found that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level of children's depression, anxiety, withdrawal, and aggression. Children's emotional autonomy were found to be a significant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depression and aggression. No significant mediator effect of emotional autonomy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withdrawal and anxiety.

주제어(Key Words): 심리통제(psychological control), 정서자율성(emotional autonomy),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I. 서론

현대를 살아가는 아동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나, 심리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발달상의 위기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부모환경은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는 아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아동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성격을 연결한 Freud와 양육방식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Symonds나 Schaefer 이래로 매우 많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수용과 통제가 양육방식을 이루는 대표적인 차원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여러 연구에서 수용과 통제차원을 모두 고려한 유형론적 접근을 시도해 왔으나, 최근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각 차원이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는 연구경향은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Baber, 1996; Baber, Olsen, & Shagle, 1994)를 가져온 통제차원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양육방식의 한 차원인 통제는 아동의 행동 통제와 심리통제로 구분된다는 것이다(Baber, 1996).

행동통제는 확고하고 일관된 규칙에 따른 자녀의 행동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Baber et al., 1994), 자녀의 생활에 대한 감시와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이라는 개념으로 조작화되어 연구되어 왔다. 한편,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아동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등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경험 및 표현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여 아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Baber, 1996). 이를 다룬 연구결과는 각각의 통제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행동통제는 아동의 문제 행동 및 내면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오히려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Baber, 1996; Steinberg & Fletcher, 1994, Crouter, MacDermind, McHale, & Perry-Jenkins, 1990; Jacobson, 2000, 김미해, 옥경희, 천희영, 2001)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통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 우울 및 행동문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Baber, 1996, 김희화, 2003; 정윤주, 2004)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온정적인 양육환경은 어머니의 통제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인 동시에 죄책감이나 실망감 등을 가지게 하는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자녀들의 내

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친근한 태도로 의사소통 하는 반면 죄책감과 실망감 등의 심리적인 통제를 통하여 자녀들의 심리를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Aunola & Nurmi,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원에 대한 연구가 보다 세분화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기 후기는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아동이 자신에 대한 독특성과 고유성을 인식하면서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영역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것은 부모에게 여전히 심리적 정서적으로 의존하거나(Steinberg, 2002) 반대로 불건강한 정서적 분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이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의 행동문제와 관련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부모의 심리통제는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초기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발달적 전환기의 아동기 후기에 독립적인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적 여유를 제공해주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이시기의 발달적 욕구인 건강한 자율성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쉽다(Baber, 1996). 왜냐하면 부모-자녀 관계는 자율성이 발달하는 맥락을 제공하며(Darling & Steinberg, 1993; 이시형, 1997), 자율성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Pettit, et al., 2001; McElhaney & Allen, 2001).

자율성에 대한 연구는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들로 대표되며 Steinberg와 Silverberg(1986)가 정서적 자율성 척도(Emotional Autonomy Scale: EAS)를 개발한 이래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에 대해 논쟁이 있어왔다. 즉, 청소년들이 보다 더 성숙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의 의존을 줄이고 부모가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그 과정 자체를 발달로 보는 견해와(Douvan & Adelson, 1966; Blos, 1962) 부모에 대한 애착과 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지받는다느 느낌이 청소년기의 발달을 촉진한다는(Ryan & Lynch, 1989) 상반된 견해이다. Ryan과 Lynch(1989)는 정서적 자율성 척도자체가 정서적 분리를 측정하는 것이며, Steinberg와 Silverberg가 애초에 개념화한 자기 의존과 자기규제의 지표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서적 자율성과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국내외 연구 결과 역시 자녀의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 수용과 부적 관계이며 행동문제와 정적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Newcomb & Bentler, 1988; Ryan & Lynch, 1989; Coleman & Hendry, 1990; Hendry, 1993;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김희화, 2005).

그러나 이에 반하여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자녀관계 특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정서적 자율성은 행동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높은 학업적 유능감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Lamborn & Steinberg, 1993),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높은 경우 정서적 자율성은 오히려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Fuhrman & Holmbeck, 1995)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서적 자율성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권위정도에 따라 중재된다는 연구결과(Beyers & Goossens, 1999)도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더불어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 역시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의 행동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더구나, 정서적 자율성에 대한 국외 많은 연구의 논쟁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입시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는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행동적으로 통제하기 쉽게 만들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기 후기에 출현하는 정서적 자율성의 개념이 긍정적 개념인지 혹은 불건강한 정서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맥락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시작해야 하는 발달적 전환기에 놓인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고찰하며,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의 영향이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 아동의 행동문제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행동문제(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천안시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동 293명으로, 학령기 후기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 인원구성은 남아가 149명(50.9%), 여아가 144명(49.1%)이었다. 연구대상을 학령기 후반인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한 지각이 자율성이 발현되고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이 시작되는 아동기 후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령기 후기는 청년기로 들어서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정서적 자율성 및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척도, 정서적 자율성 척도, 행동문제 척도(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였다.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이 어머니가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어머니가 아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하는 정도를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통제 개념의 구성 요인인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 기복의 6개 요인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약간 그렇다(2점)', '그렇다(3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최소 16점부터 최고 48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개인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심리적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나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우리 엄마는 내 일에 자주 참견 하신다', '우리 엄마는 가족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등이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α)는 .83이었다.

2) 정서적 자율성

Steinberg & Silverberg(1986)의 정서적 자율성 척도(Emotional Autonomy Scale)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 부모에 대한 탈 이상화, 부모를 개인으로 지각하기, 개별화의 4개 영역의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서적 자율성 척도의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Schmitz & Baer, 2001)에서 구성개념 타당도가 가장 낮다고 지적된 '부모를 개인으로

지각하기'의 6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을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 부모의 탈 이상화, 개별화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은 부모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독립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말하며, '부모에 대한 탈 이상화'는 부모의 가치를 이상적 기준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개별화'는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자신만의 영역을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14점-70점의 점수범위를 갖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3)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는 K-CBCL(오경자 외, 1997)의 우울(6문항), 불안(5문항), 위축(5문항), 공격성(10문항)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

주 그렇다(3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우울은 6점에서 18점, 불안은 5점에서 15점, 공격성은 10점에서 30점의 범위를 갖고 높을수록 우울하고 불안하며 위축되고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우울Cronbach's α =.78, 불안 Cronbach's α =.71, 위축 Cronbach's α =.61, 공격성이 Cronbach's α =.7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천안시 소재의 초등학교 2개교의 6학년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목적에 충분히 이해한 각 학교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후 293명의 자료가 SPSSWIN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의 고찰에 앞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그리고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차가 있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t-test를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고찰을 위해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척도의 구성

측정도구	어머니 심리통제	정서적 자율성	행동문제
하위요인	자기표현 제한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 부모에 대한 탈 이상화 개별화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 기복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 별 분석에 앞서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표 2>에

<표 2> 성별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정서적 자율성,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변수	성별(n)	평균	표준편차	t
심리통제	남(149)	26.13	6.10	.37
	여(144)	25.87	5.76	
정서적 자율성	남(149)	44.56	8.00	-1.38
	여(144)	45.80	7.32	
우울	남(149)	8.53	2.62	-2.39*
	여(144)	9.26	2.57	
불안	남(149)	7.64	2.28	-2.86**
	여(144)	8.44	2.51	
위축	남(149)	7.40	2.21	-.48
	여(144)	7.52	2.0	
공격성	남(149)	15.57	3.97	-1.82
	여(144)	15.87	3.51	

*p<.05 **p<.01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과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과 불안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축과 공격성은 남녀학생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심리통제, 정서적 자율성, 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과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 행동문제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

($r=.42, p<.001$) 우울($r=.37, p<.001$), 불안($r=.40, p<.001$), 위축($r=.19, p<.001$), 공격성($r=.31,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가 자신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은 높아지고,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도 높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어머니가 과도하게 아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 및 행동문제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정서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

발달적 전환기로 볼 수 있는 학령기 후기의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을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단

<표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정서적 자율성, 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심리통제	1					
2. 정서적 자율성	.42***	1				
3. 우울	.37***	.34***	1			
4. 불안	.40***	.23***	.59***	1		
5. 위축	.19***	.17***	.48***	.47***	1	
6. 공격성	.31***	.25***	.45***	.49***	.30***	1

*** $p<.001$

<표 4>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Beta	R	R ²	F
하위변인	비의존성	1	.25***	.25	.06	18.73***
		2	.29*** 감정불인정 -.14**	.28	.07	12.09***
	탈이상화	1	.34***	.34	.12	38.84***
		2	.22*** 감정기복 .21***	.39	.14	25.18***
	개별화	1	.39***	.39	.15	51.44***
		2	.26*** 감정기복 .24***	.43	.18	24.66***
		3	.20** 감정기복 .20** 자기표현제한 .15**	.45	.20	53.50***
	정서적자율성	1	.40***	.40	.16	53.92***
		2	.27*** 비난 .23***	.44	.19	35.16***
3		.22** 비난 .17** 감정기복 .17** 애정철회	.46	.20	25.77***	

** $p<.01$ *** $p<.001$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결과 통계량이 1.938-2.062로 정상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깝다. 이는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심리통제의 6가지 하위영역인 자기표현 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종속변인은 정서자율성 전체와 각 하위요인인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 부모에 대한 탈 이상화, 개별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 영역 중 아동의 전체 정서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비난, 불안정한 감정기복, 애정철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난은 16%를 설명하고,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3% 증가하였고, 애정철회가 투입되어 1% 설명력이 증가되어 총 20%가 아동의 정서자율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아동을 비난하고, 감정기복의 폭이 크며,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동의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을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서자율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어머니 심리통제의 변인은 비난(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정 불인정이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1% 증가하여 7%가 되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비난하는 심리통제를 할수록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은 높아지며, 아동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서자율성의 하위요인 중 부모에 대한 탈 이상화에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하위변인은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12%를 설명하고, 비난이 투입되어 총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감정의 기복을 보이며, 아동을 비난할수록 부모를 이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에서 탈피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 중 개별화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하위 변인은 불안정한 감정 기복(15%)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다음으로는 애정 철회(3% 증가), 자기표현 제한(2% 증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어머니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감정기복을 보이고, 애정을 철회하며, 자기표현을 제한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사적인 영역을 개별화하는 데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어머니가 아동을 비난하는 식으로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아동이 정서적 자율성 중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의 결과를 가져오며,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영역 중 부모에 대한 탈 이상화와 개별화의 성향을 높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아동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존적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을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통제의 3가지 하위영역인 자기표현 제한, 죄책감 유발, 감정 불인정과 아동의 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아동의 성은 남아=0, 여아=1로 dummy 코딩하여 하였다. 아동의 문제 행동 중 우울과 불안은 아동의 성차가 있으므로 독립변인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종속변인은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Durbin-Watson 검증결과 통계량이 1.833-2.048로 나타나 오차항간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심리통제 요인 중 비난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14.0%, 11%, 4%, 9%)의 모든 문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좀 더 살펴보면, 비난 다음으로 아동의 성이 설명력을 높이고 있고(2%), 다음으로 애정을 철회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변인이 설명력을 1% 높여 아동의 우울을 총 17%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불안 역시 비난 다음으로 성이 3%를 추가로 설명하며, 어머니의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추가적으로 3% 설명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동을 비난하고, 불안정한 감정기복을 보일수록, 여아인 경우 아동의 불안 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위축을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통제 영역 중 비난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심리통제의 나머지 변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공격성은 어머니의 심리통제 영역 중 비난(9%)과 자기표현 제한(1%), 애정철회(1%)의 순으로 영향을 받으며, 아동의 성이 설명력을 1%높여 총 12% 설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어머니가 아동에게 비난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심리적 영역을 통제할수록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향이 높아지며, 애정을 보이지 않고 차갑게 대하는 식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과 공격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한 감정기복을 보이는 식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우울성향을 높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우울과 불안, 공격성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단 계	독립변수	Beta	R	R ²	F
우 울	1	비 난	.38***	.38	.14	48.65***
	2	비 난 성	.38** .15**	.41	.16	28.94***
	3	비 난 성 애정철회	.29*** .15** .15*	.42	.17	21.08***
불 안	1	비 난	.34***	.34	.11	37.82***
	2	비 난 성	.35*** .18***	.39	.14	24.86***
	3	비 난 성 감정기복	.22*** .19*** .22***	.42	.17	21.05***
위 축	1	비 난	.21***	.21	.04	13.48***
공격성	1	비 난	.30***	.30	.09	28.11***
	2	비 난 자기표현제한	.22*** .16**	.33	.10	17.68***
	3	비 난 자기표현제한 애정철회	.14* .14* .15*	.35	.11	13.29***
	4	비 난 자기표현제한 애정철회 성	.15* .13* .15* .11*	3.66	.12	11.12***

* $p < .05$ ** $p < .01$ *** $p < .001$

5.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자
율성의 매개효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자율성의 매개적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세 가지 단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적 변인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①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매개변인인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고, ②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③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매개변인인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회귀식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아 1단계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 ① 독립→매개
- ② 독립→종속
- ③ 독립,매개→종속

이러한 단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매개변인인 정서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42, p < .001$).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영향력은 매개변인인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을 투입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감소하여($B=.37, p < .001 \rightarrow B=.27, p < .001$)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자율성이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B=.31, p < .001$) 매개변인인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B=.25, p < .001$)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은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Beta	R ²	F	
우울	①	심리통제→정서적 자율성	.42***	.17	60.97***
	②	심리통제→우울	.37***	.13	45.52***
	③	심리통제→우울 정서적자율성→우울	.27*** .23***	.17	31.46***
불안	①	심리통제→정서적자율성	.42***	.17	60.97***
	②	심리통제→불안	.40***	.15	54.07***
	③	심리통제→불안 정서적자율성→불안	.36*** .08	.16	28.06***
위축	①	심리통제→정서적자율성	.42***	.17	60.97***
	②	심리통제→위축	.19***	.04	10.82***
	③	심리통제→위축 정서적자율성→위축	.14* .11	.10	31.92***
공격성	①	심리통제→정서적자율성	.42***	.17	60.97***
	②	심리통제→공격성	.31***	.10	31.92***
	③	심리통제→공격성 정서적자율성→공격성	.25*** .14*	.11	19.04***

*p<.05 **p<.01 ***p<.001

불안, 위축과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경향은 어머니가 아동의 사고와 표현, 감정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경험을 억누르거나 무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으나, 이러한 효과는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과도한 심리적 통제가 있어도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이 낮으면 그 영향은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기 후기의 정서적 자율성의 개념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적 분리의 개념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불안과 위축은 어머니의 심리통제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정서적 자율성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발달적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학령기 후기의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인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어떻게 관련되며,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적 자율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정서적 자율성이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 수용과 부적 관계이며 행동문제와 정적 관계임을 밝힌 연구결과(Newcomb & Bentler, 1988; Ryan & Lynch, 1989; Coleman & Hendry, 1990; Hendry, 1993; 정진경 외 3인, 2005; 김희화, 2005)를 지지한다. 즉,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자율성의 부정적 개념에 대한 논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아동기 후기의 정서적 자율성의 개념이 청소년기로의 전환에 획득해야할 긍정적 의미의 발달과업의 개념이기 보다는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느껴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부정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정서적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결과의 해석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아동기 후기는 자율성이 완전히 습득되지 못하고 발현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정서적 자율성의 과도기적 특성일 가능성, 나아가 이러한 결과가 자율성의 발달이 좀 더 명확한 청소년기에도 지지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보다 밀착된 한국사회의 특성 상 정서적 자율성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국내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진 뒤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행동문제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우울, 불안, 위축의 내현화 문제 및 비행,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Pettit *et al.*, 2001; Baber, 1996, Aunola & Nurmi, 2005, 김희화, 2003; 정윤주, 2004)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원 중 통제 영역에서 통제 개념을 정의하는데 행동통제와 심리통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Baber, 1996)을 뒷받침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심리통제는 아동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친구관계, 활동의 내용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동통제와는 다른 아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한 간섭과 감정 억압 및 표현 제한과 같은 또 다른 차원으로 보아 개념적으로 구분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해본 결과 어머니 심리통제 하위 영역 중 비난과 불안정한 감정기복, 애정철회가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자율성의 영역을 좀 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어머니 심리통제의 변인은 비난이며, 부모에 대한 탈 이상화와 개별화를 가장 잘 예측하는 어머니 심리통제 변인은 불안정한 감정 기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머니가 아동을 비난하며 심리적 영역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을 높인다는 것은 비의존성의 개념이 아동에게 긍정적 독립의 의미보다는 갈등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에게 기대지 못하고 분리감을 경험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감정의 기복을 보일수록 부모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별화를 이루어나간다는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모의 가치기준에서 벗어나고, 부모와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서적 자율성이 부모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개념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 연구(Blos, 1979; Steinberg & Silverberg, 1986)와는 달리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수용과 부적 관계임을 밝힌 연구(Ryan & Lynch, 1989)의 주장처럼 정서적 자율성은 애착의 상실 또는 불건강한 정서의 분리를 반영하며, 정서적 자율성의 발달은 상실을 낳고 결과적으로 고통을 초래한다(Hill & Holmbeck, 1986)는 주장을 지지한다. 아마도 이는 우리사회가 갖는 가족 중심적인 분위기가 정서적 자율성의 '개별화'

와 '독립'의 긍정적 적응의 의미보다는 불안정감과 분리감을 경험하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됨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자율성이 완전히 습득되지 못한 아동기 후기의 특성일 가능성과 가족중심적인, 특히 부모-자녀관계가 밀착된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심리통제의 하위 변인은 아동의 행동문제인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먼저, 아동의 우울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하위 변인은 비난과 애정철회이며, 불안은 비난과 불안정한 감정 기복이고, 위축은 비난, 공격성은 비난, 자기표현제한, 애정철회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동에게 비난을 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영역을 통제할수록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향이 높아지며, 아동에게 애정을 철회하고 차가운 태도로 양육한다면 아동은 우울하고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감정기복이 불안정한 것은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의 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Pettit *et al.*, 2001; Baber, 1996, Aunola & Nurmi, 2005, 김희화, 2003; 정윤주, 2004)와 일치한다.

특히, 어머니가 아동을 비난하는 식으로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아동의 모든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예측하는 어머니 심리통제의 하위 변인과 불안을 예측하는 심리통제의 하위 변인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방식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상담 현장에서 부모 상담이나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적 효과를 탐색해본 결과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은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높은 경우 높은 정서적 자율성은 오히려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Fuhrman & Holmbeck, 1995)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오히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낮은 정서적 자율성이 부모의 심리통제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사고와 표현, 감정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경험을 억누르거나 무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과도하게 통제하게 되면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향은 높아지나,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이 낮은 경우 즉, 부모와의 애착을 상실하지 않고 의존

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영향이 완화되어 행동문제가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불안과 위축에 대한 어머니 심리통제의 영향에 대해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불안과 위축간의 관계가 또래수용도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연구(정운주, 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불안과 위축이라는 행동문제는 우울과 공격성이라는 관계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는 달리 아동의 개인적인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더구나 불안과 위축된 아동은 이러한 문제로 부모에 대한 의존적 성향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위축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이 보고한 심리통제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심리통제의 차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아동기 후기에 발현되는 정서적 자율성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진정한 자율성의 발달은 청년기를 거쳐 후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본다면, 학령기 후기 아동의 경우에는 정서적 자율성의 발달이 과정의 초기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고,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정서적 자율성의 부정적 개념은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기를 거쳐 발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 또는 아동기 후기의 정서적 자율성 개념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정서적 자율성의 발달에 대한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의 축적되어 정서적 자율성 자체의 개념적 문제와 더불어 정서적 자율성 발달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 중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를 가져온 통제차원을 보다 심도 깊게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각 영역의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부모 및 상담자 및 교육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발달적 전환기에 있는 학령 후기 아동에게 건강한 정서적 자율성의 발현은 매우 중요한데, 환경적으로 어머

니의 심리적 통제가 주어질 때는 이러한 자율성의 발달이 부정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teinberg 와 Silverberg(1986)의 건강한 자아발달 과정의 개념인 정서적 자율성 개념에 반한 불건강한 애착 상실의 개념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 자율성의 출현이 시작되는 아동기 후기에 자율성의 발달이 불건강한 정서적 분리가 아닌 건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부모양육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아동의 건강한 정서적 자율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미혜, 옥경희, 천희영(2001). 초기 청소년기 방과 후 활동과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9(6), 93-108.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 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김희화(2005).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 복지감 및 비행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2(4), 151-168.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K-CBCL). 중앙적성 연구소.
- 이시형(1997).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기 심리 사회적 적응.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96(2).
- 정운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4(4), 755-770.
- Aunola, K., & Nurmi, J. E.(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ber, B. K., Olsen, J. E., & Shagle, S. C.(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 65(4), 1120-1136.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yers, W., & Goossens, L.(1999). Emotional autonomy,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parenting: Interactions,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22(6), 753-769.
- Blos, P.(1962). *On adolescence: 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Glencoe, IL: Free Press.
- Blos, P.(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oleman, J. C., & Hendry, L.(1990). *The nature of adolescence*(2nd ed.). London: Routledge.
- Crouter, A. C., MacDermind, S. M., & Perry-Jenkins, M.(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7.
- Darling, N., & Steinberg, L.(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NY: Wiley.
- Fuhrman, T., & Holmbeck, G. N.(1995). A contextual moderator analysis of emotional autonomy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3), 793-811.
- Hendry, L. B.(1993). *Growing up and Going out*. Aberdeen, SD: Aberdeen University Press
- Hill, J. P., & Holmbeck, G.(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In G. Whitehurst(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3). Greenwich, CT: JAI.
- Jacobson, K. C.(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1), 65-97.
- Lamborn, S. D., & Steinberg, L.(1993). Emotional autonomy redux: Revisiting Ryan and Lynch. *Child Development*, 64(2), 483-499.
- McElhaney, K. B., & Allen, J. P.(2001). Autonomy and adolescent social functio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risk, *Child Development*, 72(1), 220-235.
- Newcomb, M. D., & Bentler, P. M.(1988). *Consequences of adolescent drug use: Impact on the lives of young adults*. Newbury Park, CA: Sage.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2001).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Ryan, R. M., & Lynch, J. H.(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2), 340-356.
- Schmitz, M. F., & Baer, J. C.(2001). The vicissitudes of measuremen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emotional autonomy scale. *Child Development*, 72(1), 207-219.
- Steinberg, L.(2002). *Adolescence*.(6th ed.). Boston, MA: McGraw-Hill.
- Steinberg, L., & Fletcher, A. P.(1994).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Pediatrics*, 93(6), 1060-1064.
- Steinberg, L., & Silverberg, S. B.(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4), 841-851.

(2007년 4월 28일 접수, 2007년 5월 31일 채택)